현불논단

상월결사 순례와 부처님 전법정신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3년 준비 거쳐 시작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 45년 동안 걸으셨던 길을 좇아서
'韓불교 중흥' 화두로, 43일 1167km 걸어

부처님, 중생들에게 행복해지는 길 알리려
열반의 순간까지 전법을 멈추지 않으셨다

걸음걸음 온 세상 채우는 서원과 깨달음 돼
저마다 부처님 꽃피워내는 순례길 되길

2월 9일, 약 3년의 준비를 거쳐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시작된다. 2019년 동안거 기간에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 동안 산중을 중심으로 전통을 보존해왔던 한국불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산중불교에서 도심의 대중불교로,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에서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 그 방향성의 전환이 한국불교 중흥의 첫걸음이라는 굳건한 원력이 불자들의 화두가 되어 공감대를 찾는 순간이었다. 그러한 공감의 원천은,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성취한 뒤 45년 동안 중생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부처님의 전법 정신에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45년은 하루하루가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을 찾아나서는 발걸음으로 채워졌다. 맨발의 발걸음이었다. 불화에서 부처님의 두 발은 하얗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묘사된다. 불자들은 45년 동안 두 발이 부르트고 짓무르고 굳은살이 가득했을 그 발바닥 대신에, 하얗고 부드러운 두 발을 그려 넣는다. 못생기고 거칠어진 두 발보다, 그런 두 발이 담고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불자들의 생각이 반영되었음직하다.

부르트고 짓무르고 굳은살이 가득한 두 발로, 부처님이 45년 동안 걸으셨던 그 길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걷는다고 한다. 43일 1167km의 여정을 걷고 나면, 순례단의 두 발 역시 부처님의 두 발처럼 부르트고 짓무르고 굳은살이 가득할 것이다. 풍토도 기후도 다른 땅이니 힘들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길일 것이다. 그런 길에 오로지 서원 하나로 동참하는 순례단을 향해 박수를 아니 보낼 수 없다.

순례단이 좇아가는 길은 부처님이 일생 동안 걸으셨던 전법의 경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그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시자 아난만을 데리고서, 때로는 대중들 모두와 함께. 멈추지 않았던 발걸음은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중생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절실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절박하고 절실했던 것일까? 온전히 귀히 여겨지고 존중받아야 할 생명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런 중생들이 온 세상에 한가득이니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은 '한 생명 더 일깨우는' 전법의 삶을 멈추지 않으셨다.

〈수행본기경〉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향해 외치신 탄생게(誕生偈)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부처님이 걸으셨던 일생의 궤적을 보여주는 한마디다. 존중받아 마땅한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달아 안락(安樂)을 얻을 때까지 걸으셨던 그 발걸음의 이유를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걸으신 전법의 행로를 순례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품으셨던 그 정신을 각자의 가슴 깊숙하게 아로새기는 행위이다. 순례단이 걷는 한 걸음마다, 부처님께서 앞서 걸으셨다.

이제 부처님께서 홀로 걷기 시작했던 그 길에, 수만리 동쪽 땅에서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길에 동참하는 이들이, 2500년의 시간을 넘어 다함께 걷는다. 그 길에 힘든 생명도 있을 것이고, 그 길에 기쁜 생명도 있을 것이고, 그 길에 가엾이 여겨지는 생명도 있을 것이고, 그 길에 존중받아야 할 생명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한 생명도 외면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모든 생명을 아울러 세우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도 이어지는 상생의 큰 정신으로 성취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나아가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채우는 서원, 온 세상을 채우는 깨달음이 되어, 지금 여기 곳곳에 저마다의 부처님을 꽃피워내는 순례길이 되기를 기원한다.

社說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거는 기대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2월 9일 오전 6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순례의 시작을 조계사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슬로건으로 봉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순례단이 목조 부처님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한다. 이들은 부처님 8대 성지와 1167km를 43일 동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들도 진행된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어에서 말씀했듯이 상월결사의 인도순례는 "불교사상 유래가 없는 대작불사"이며 "불자들의 본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그대로 실현하는" 수행이다.

이번 순례는 2019년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이후 이어진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평화방생순례'의 종결어미이다. 또한 3년동안 진행된 순례의 '화룡점정'이기도 하다.

길 위에서 부처님은 중생을 찾아 45년 동안 교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를 서원했던 상월결사가 그 '붓다의 길'을 걷는다. 43일의 장정에서 순례단은 적지 않는 장애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불퇴전의 정진력으로 극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저마다 한국불교 중흥의 해법을 찾길 기대해 본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 무사귀환을 두 손모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기원한다.

강진 피해 튀르키예에 자비 손길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두 차례의 강진과 그 여진으로 사상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월 9일 현재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5000채 넘는 건물이 무너졌다. 강추위와 추가 붕괴 우려로 작업이 더뎌지면서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피해 지역 구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피해 지역에 독자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고 긴급구호팀을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를 2월 8일 파견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변국도 한목소리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야 할 이유가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전쟁 기간 중 연인원 1만 5000여 명이 참전했고 1000명이 전사했다.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는 이유다.

튀르키예는 지금 긴급 구조 인력과 의료인, 구호 물품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시리아는 12년 넘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차에 강진 피해까지 겪게 돼 국제사회의 구호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계NGO 더프라미스, 나누며하나되기 등이 모연을 통해 이들을 지원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 돕는 것이 인류애의 발휘이자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다. 많은 불자들이 '보시이타(布施利他)' 정신으로 연대, 피해 국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비나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⑪ 영화 '브로커'

혈연 아닌 인연의 '가족'

'브로커'는 일본 감독(고레에다 히로카즈)이 연출한 한국영화이다. 이 영화를 한국영화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한국배우들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어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는 이 영화로 한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가족이라는 화두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영화는 우성이라는 아이가 베이비 박스 시설에 버려지면서 시작된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상현(송강호)과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강동원)가 우성을 몰래 데려가고, 이튿날, 소영(이지은)이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온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우성을 잘 키워줄 새 부모를 찾기로 한다. 중간부터 여정에는 동수가 자란 보육원 원아인 해진도 동참하게 된다. 해진이 상현 일행의 동의 없이 차에 몰래 탑승한 것이다. 이 기인한 여정의 뒤를 여성청소년과 형사인 안수진(배두나)과 이은주(이주영)가 쫓는다.

영화 제목은 상현이 자칭 "선의의 브로커"라고 말한 데서 기인한다. 브로커의 사전적 의미는 중개하다, 즉, '제3자로서 두 사람의 사이를 주선하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우성은 사람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성이 시설에 버려지면서 상현과 동수는 소영을 만나게 되고, 안수진과 이은주는 상현 일행을 뒤쫓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버림 받았거나 자녀를 버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중학생이 된 딸을 만나는 장면에서 상현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빚에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봐서 상현의 무능함이 이혼의 귀책사유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수는 고아원 출신으로서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써놓고도 결국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아왔다. 동수가 소영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진 이유도 연락처 없이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라는 쪽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소영은 부모에게도, 포주에게도, 남자에게도 버림받은 인물이다. 뱃속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소영은 남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고,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빛과 어둠의 활용만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미장센을 연출했다. 가령, 상현 일행이 KTX를 타고 상경하는 장면은 점멸(點滅)하는 창 밖 자연광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고, 동수와 소영이 흔들리는 월미도의 관람차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고운 서정의 결이 느껴진다.

점들이 이어져 하나의 선이 되듯이, 구슬들이 이어져 하나의 인드라망이 되듯이, 이 영화 속에서는 혈연이 아닌 인연들이 이어져 하나의 가족이 된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